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82호
10월 2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8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양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권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평등법안 반대 국민청원 10만 달성

평등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 우렁하듯 평등법안 발의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숨길 수는 없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선언문, 전국 50개 단체 연합은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하여 성공을 보았다.

민주당 박주인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도 또다시 십만 명 동의를 받았다. 이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는 '자녀(연) 6명인 박주인 의원이 평등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만 4일 만에 십만 명 동의를 받았다'며 "반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박주인 의원이 또다시 평등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반대 발의인 이성민 의원의 비효율에 대부분이 내용이 중복된다. 박의원은 마치 평등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를 우렁하듯 하듯이 국민에 대한 도발을 저질렀다. 국민의 뜻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인기몰이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안하무인적 태도라고 했다. 다음은 진정된 성명서 전문

민주당 박주인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국민

동의청원도 또다시 십만 명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월에 민주당 이성민 의원이 평등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만 4일 만에 십만 명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박주인 의원이 또다시 평등법안을 발의하였다. 마치 발의한 이성민 의원의 비효율에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된다. 박 의원은 마치 평등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를 우렁하듯 하듯이 국민에 대한 도발을 저질렀다. 국민의 뜻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인기몰이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안하무인적 태도라고 했다.

두 차이를 둔 학부포도끼 자신을 발원 원장자는 박 의원의 평등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9월 22일에 제1국인 십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문에서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 용호 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반대할 자에게 자위하지 않을 것을 강요할 것이라며 안 하무인적 태도를 쏟아냈다. 우리보다 앞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의 몸으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동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남성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임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도 평등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잘못했다는 반성 언급이나 아직도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등법 제정으로 발생한 여차별과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서는 꼭꼭 숨기면서 마치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세상이 온갖 처럼 포정하여 매우, 과장 광고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제정안이 맞는지 묻고 싶다. '자주 평등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통분을 표한 청원자의 말에 100% 공감하게 된다.

아무리 선타마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숨길 수는 없다. 차, 제의 평등법안을 발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악법에 대해 분노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법과 정책은 없어야 한다. 평등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자업자득의 열매를 따먹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진명연

제68차 총회 제28회 임원회

국민동의청원 십만 명 동의, 평등법안 철회 촉구

대면배회복, 코로나19 피로감으로 힘든 교회들 돌봐야



신재환 목사
예수교 대한남양성회
새로운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환 목사) 제68차 총회 제28회 임원회가 지난 9월 30일(목) 오후 3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상으로 열린 다중영상회의에서 각 종 목교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 내용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환 목사의 인도로 제부 한순남 목사의 개회기도와 찬송 후, 부총회장 정성희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신재환 목사의 설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애환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회계 김건수 목사의 마무리기도, 서기 정영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재환 목사는 마 10:16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움'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비밀 안에서 오직 지혜로움으로 무장하여서 바늘처럼 순교하고 환난을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약하고 '정말 경건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만 붙여주고 주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해나기만 하신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환 목사 주례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임절영, 의장 신재환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

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추이를 살피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1년도 목사교시를 지른 후 회중 할복자들에게 대한 목사안수식을 지원하되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아울러 2021년도 목사교시 일정(목양신문 1182호 7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제부 한순남 목사의 수임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의 사항으로 교회기금 청원, 교역자기금 청원, 교역자 전출임 청원, 교역자소련청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임원회에서는 민주당 박주인 의원이 또다시 평등법안을 발의한 내용은 먼저 발의한 이성민 의원의 비효율에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된다. 박 의원은 마치 평등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를 우렁하듯 하듯이 국민에 대한 도발을 저질렀다고 보고, 국민의 뜻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인기몰이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안하무인적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처럼 박주인 의원의 발의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9월 22일 국민 십만 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저들이 강력한 국민의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철회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2년 가까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놓여져만



가는 피로감으로 힘들어 하는 교회들을 한이 닿는 대로 돌봐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정부 방역 당국에 교회를 방역을 받기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대면배회복을 돕고 이에 대해 교회발 걸음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묘하게 포퓰리즘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동성애법 등 각종 입법 및 조례제정안이 검토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가 공역 시도 22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를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6)



조송ung 목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당연히 말씀으로 여길 것입니다. 한편 비 기독교인들은 비웃고 반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이 말씀이 학교부동한 전도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거나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예수님과 불확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형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으로 의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이 변화되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 행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3백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은 사건은 승리가 숫자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벳새다 광야에서의 오병이 거저 사건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더 강했다는 것임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하는 것은 헛일이고 되고 만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문예과 신리교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떠나서는'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죄와 죄를 인간의 방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떠나서는'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죄와 죄를 인간의 방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

선부른 종전선언 주장, 우려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가는 데서 신 역할을 하는 촉발제'라고 설명했다.

가인이는 국제사회는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보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주제로 거명 한 남북·북·미·중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가는 어디인가?

종전선언의 요체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국제 사회에서 어떤 신뢰도 생기기 어렵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도 남북 정상이 정전체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공감하면서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이, 유엔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리퍼렛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물류통로 분리, 우린 농축 및 다른 핵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한다.'

한 마디로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고, 북한은 또 그런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일단인도도 없으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國益)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일단 내지 않은 시도 22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를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종전선언은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를 외교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토대로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외교력의 부족이며,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종전선언이 선언되면, 북한은 당장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엔군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유엔군과 미군은 한반도의 전력(戰力)은 그 균형이 심각하게 깨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를 누가 막고 책임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실재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면서 종전선언만 되풀이하는 것은 북한을 매도하는 불행한 것이다. 북한 당국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만 더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국교 회인문회



▲사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원회에서 기념촬영 장면

한교연 추석 맞아 탈북민 위로

탈북민 50여 명에게 떡과 각종 선물 세트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대섭 목사)은 지난 9월 15일(수) 오전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양주시 아미교회에서 2021 한기위 탈북민 초청 위로회 행사를 열었다. 한기위 여성위원(위원장 김유자 목사)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민족공유의 명절을 맞아 북에 두고 온 고향과 일가친척을 그리워하며 외로운 한가위를 맞을 탈북민 형제자매 50여 명을 초청해 선물과 떡 등을 나누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여성위 서기 공선영 김도사의 사회로 송대섭 대표회장 목사가 기도한 후 공동회장 김애선 목사가 영상 19:1-8 말씀을 봉독했다. 이어 대표회장 송대섭 목사가 "죽을만큼 힘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송대섭 목사는 설교에서 "누구에게나 죽음은 힘든 시기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간 6.25 전쟁, IMF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힘든 고비를 넘겼는데, 지



금은 또 코로나 광풍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힘든 고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참고 건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준다.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다.

송 목사는 또 "자위를 찾아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 3만 5천여 탈북민들은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비를

넘어야 했을 것"이라며 "지금 힘들더라도 모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주셔서 그다음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전담사에서 한교연 임원들은 참석자에게 참치선물세트와 말기루 부침 세트, 송편과 간식, 컵술치키프트, 마스크 팩 등 푸짐한 한기위 선물꾸러미를 탈북민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했다.

예장보수합동, 제106회 정기총회...말씀과 성령으로

총회장 이광웅 목사 만장일치로 유임



총회장
이광웅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합동)총회 제106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총회본부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열려 총회장에 이광웅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사)예장총연과 (사)한부연과 연계해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인원으로 참가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 수칙 지킴이 이번 총회는 새벽기도와 찬양과 성경표지 운동 목사지침 행상을 위한 연교교회 심사 등의 사업을 추

진하기로 했다.

1부 예배는 총회장 이광웅 목사의 사회로 연합찬송 노회 노회장 홍순면 목사의 기도, 연합찬송노회 회계 이진호 목사의 특송, 증경총회장 조요한 목사의 마 28: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입마누엘'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총무 최정철 목사가 국기와 통일을 위하여, 경장노회 노회장 이병명 목사가 대통령 총선과 정계 지도자들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연합찬송노회 무노회장 모성준 목사가 한국교회와 보수합동총회를 위하여 한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다.

부총회장 김용희 목사의 축도로 이어진 2

부 성전예식은 총회장 이광웅 목사의 집례로 이광웅 목사의 성전의 의미가 담긴 설교, 배병, 비잔틴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의미를 새겼다.

3부 회무처리는 총대오명과 개회선언에 이어 각부 보고를 유임들로 받은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총회장 이광웅 목사를 비롯한 제106회기별기별기별 임원진을 선출했다.

△증경총회장 조요한 목사 △총회장 이광웅 목사 △부총회장 김용희 목사 △유지연 목사 △서기 이대원 목사 △사무처장 홍순면 목사 △회의록서기 강경희 목사 △사무회의록서기 이병명 목사 △간회 박건배 목사 △사무회계 신규원 목사 △총무 최정철 목사 △총회신학장 조요한 목사

만장일치로 연합기관 대통합 결의

한기총, 제32-1차 임원회 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최근 큰빛교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에서 제32-1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화요일정 결과 10명 참석, 11명 위임으로 성수가 있었고 개회선언,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회의를 시작하며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2021.9 이후 본안소속 1인회를 목사님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제31회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임시대표회장이 선임된 경우, 일각에서 불법과 총회를 불식하고 한기총 사무처를 무단으로 잠가놓겠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긴급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임명하게 된 경우 등을 보고했다.



감사 선정의 건으로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추천한 오경태 정로(공인회계사), 평교목 목사(예장합동한신 총회장), 이탁구 목사(예장합동기원총회 증경총회장을 감사로 선정했다.

기타안건으로 황덕광 목사가 발의한 통합노회의 건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회에 앞서 총합적인 우리에 있는 임시대표회장에게 통합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관한 전문을

위임하여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과 협의하여 통합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철저한 임원들은 전원 기탁하여 박수로 통합의사를 보다 명확히 했다. 기타안건으로 서승원 목사가 발의한 임원회비 책정의 건에 대하여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회비 액수를 감액하여 제한수준안대로 임원회비는 증경대표회장 명예회장, 공동회장 100만원 이상, 공동부회장, 상임위원장, 총무, 서기, 회계 50만원,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기타안건으로 발표교단(체) 소속의 증경대표회장 및 명예회장의 이명권 재향 문제의 건은 앞서 결의한 임원회비 책정의 건과 연결하여 증경대표회장 및 명예회장을 임원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으며, 결의 재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신대, 외국인 학생에 장학금 기부

권오섭 회장이 메디힐 장학재단 통해

앨런테크노캐피탈권오섭 회장이지난8월 메디힐 장학재단을 통해 아신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권 회장은 아신대 이장호 이사장이 시무하고 있는 높은뜻 광성교회 성도로서 아신대 사역에 감동을 받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외국인 학생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한 바 있다.

앨런테크노캐피탈은 대표브랜딩 메디힐을 통해 메디힐 코스파를 출시하여 국내외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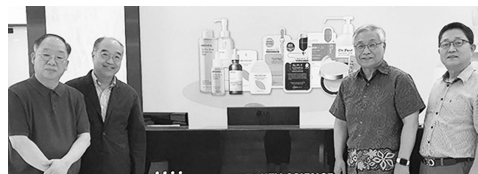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장차자 후 유익은 아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세립지 메디힐 장학재단을 통해 국내 여러 대학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려는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아신대 정영일 총장은 메디힐 장학재단을 통한 권오섭 회장의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메디힐 장학재단의 후원이 아신대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신대는 1974년 설립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

을 만들고 선발된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해 오고 있다. 현재도 아신대 국제교직원(AIGS)에는 26개국 7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아신대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은 해당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져 선교사역과 함께 우리나라와의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합동보수 '제106회 총회' 총회장 반정웅 목사

"반기독교 광풍에 맞서 정통 신학으로 당당히 진리 앞에 나갈 것"



반정웅 목사

한국교회 보수신학의 정통을 이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반정웅 목사는 지난 9월 14일(화)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 옥도교회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반정웅 목사를 추대했다. 반 목사는 위기를 이겨내며 더욱 담대해지는 총회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전진하는 총회"란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는 엄격한 방역 속에 총회를 위한 최소한의 예배와 회의를 진행했다. 성전예식은 생략되고, 대부분의 보고 역시 유임들로 대신했다.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전 총대원이 반정웅 목사를 만장일치로 총회장에 추대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교회의 폐쇄가 급증하는 이때, 경험 많은 노련한 지도자를 통해 위기를 헤쳐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 목사는 오랜 기간 교단 총무를 역임한데 반하여, "우리가 담대히 위기를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대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반기독교 광풍이 사대를 지배하며, 진리를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발언, 평등론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행에 불응하여 일어서야 한다"며 "우리 합동보수사이에 앞장설 것이다. 보수신학의 깃발을 내걸고, 당당히 진리 앞에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장중앙총회, 제52회 정기총회

류금순 총회장,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제도적으로 이뤄내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총회는 지난 9월 2일(목) 서울 일제동 소재 총회본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갖고 현 총회장인 류금순 목사를 연임시켰다.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총회가 진행되었다. 류금순 목사가 단독으로 나신 총회장 선

기는 총 3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308표, 반대 27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류금순 목사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류금순 총회장은 지난 총회에서 수정한 헌법제14조 제2항의 입법을 수행해냈다.

총회장 류금순 목사는 "이제 총회가 발전의 부분과 적인 코로나로 총회가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제기한데 총회가 안전장치가 루임 총회장에게 발전의 문제 등 신경 쓰게 하고 싶었다"라며 "고심 끝에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내었다는 마음으로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 안정을 바라는 총대원에서 부족한 점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교회(회장 권의현)는 지난 9월 9일(목) 서울영광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마다가스카르에 '말라가시 성령' 10,000부, 말라위에 '치레아이 성령' 6,482부,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령' 24,880부를 보내는 기증사를 가졌다.

이날 기증사에서 서울영광교회 성령 반포사역 담당인 최정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런에 우리가 저처럼 반포하는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령은 먼저 생명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 대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기도를 전했다.

마다가스카르성서공회 파브리스 라베라리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마다가스카르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기쁨과 감사를 전했다.

권의 현 사장은 "서울영광교회를 비



롯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성경 기증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감사사를 전했다.

아프리카의 심과 마다가스카르는 국민의 41%가 기독교인이지만 인구의 1/3은 문맹으로 글을 읽지 못하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전달되는 말라가시 성령 10,000부

는 성경을 접하기 어려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갈 길을 비추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프리카 내륙의 말라위는 10만 국민총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열악한 나라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소망을 품고 있다.

예장(웨신), 제106회 정기총회

신임총회장에 김현수 목사 만장일치로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9월 6일(월)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소재 권기대교회(회장 김현수 목사)에서 '부르심을의 뜻과 사랑'이란 주제로 제106회 정

기총회를 갖고 신임총회장에 김현수 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설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개회예식은 부총회장 박수현 목사의 사회로 서기 황병기 목

사의 기도, 회의록서기 이소영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박정국 목사의 잠25:8-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의 마음을 사원하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정국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주님 안에서 지교회·노회·총회에 총성을 타는 웨신 가족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이종구 목사의 축사와 감사 후 총무 이준영 목사의 광고, 직전총회장 허정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수제 청귤청 제조 판매, 선교지에 코로나 극복 후원금 보내... 제주 한마음교회

제주지방교회

제주지방교회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 여선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에서 매년 8-9월에만 수확하는 청귤(보글)로 수제 청귤청을 만들어 판매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선교지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교회 보수공사비에도 보탬이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사위포에서 갓 수확한 풋귤을 비로 공수해 와서 베이킹 소다와 식초로 깨끗이 세척하고 24kg 유리병을 100°C 끓는 물에 소독 건조시킨 후 청귤청을 얹어 썰어서 설탕과 올리고당을 적정한 비율로 혼합 후 숙성시켜 청귤청을 담는다.

청귤청의 효능은 최근에 폐스캔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항산화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이 된다고 한다.

1차에 208병을 만들어 비로 완판하였고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2차분 70병을 만들어 현재 30병정도가 남아있다고 한다.

청귤청이 필요한 본들은 제주한마음교회로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문의

010-3898-5764)

청귤의 효능

년 중 이 시기에 한 달 동안만 출하되는 풋귤 즉 청귤껍질은 청파라고하며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청파에는 진피보다



비타민C, 사이클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리모노이드 등의 함유량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시진(본초강독)-

1. 체중조절 [다이어트] 2. 노화예방 3. 면역력강화 4. 기미 및 주근깨 예방 5. 변비 개선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 드려

광주신학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9월 6일(월) 오전 11시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신학교 제1강의실에서 교수와 신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학생회장 김해상 교수(순복음중앙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이시진(본초강독) 교수(무안 은혜순복음교회)는 빌 1:15-18 말씀을 본문으로 '학창년의 방학이 복음전파에 유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정찬식 교수(성곡교회)의 대표 기도,



민경술 교수(순복음동신교회)의 헌금 기도 후 학장 최정식 교수(순복음복원교회)가 13주 동안 진행될 2학기 수업과 신학교의 비전

에 대해 전하고, 교단 총회장 김영인 교수(목양제일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자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1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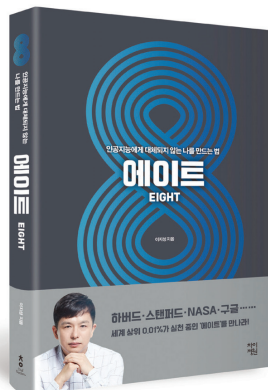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사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120쇄 돌파! 화제의 종합 베스트셀러!

당신이 알아야 할 인공지능 시대



이시정 지음 | 값 17,000원

하버드, 스탠퍼드, NASA, 구글...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에이트'를 만나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모두를 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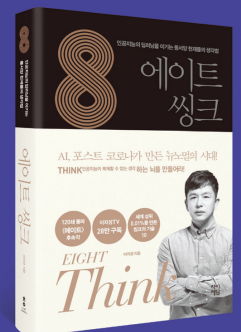
에이트

EIGHT



에이트 실천편

인공지능을 이기는
'씽크'의 힘!



에이트 씽크

문의전화 02-334-7932

차이
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정혁위원장 조종목 목사
은혜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세검초교회



고문 정부영 목사
대림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인원

전국

지부

장



예배부장 김경희 목사
기쁨교회



선교부장 김순자 목사
회복교회



복자부장 이복순 목사
기쁨교회



봉사부장 김종애 목사
기쁨교회



홍보부장 안선자 목사
기쁨교회



재정부장 김경희 목사
기쁨교회



행정부장 김경희 목사
기쁨교회



기획부장 김경희 목사
기쁨교회



행사부장 김경희 목사
기쁨교회



선교부장 김경희 목사
기쁨교회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서울중앙지부의 자부장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윤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권(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본부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윤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노선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김수홍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정준호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은기 목사, 박귀환 목사, 윤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최희석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부회장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관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사무총장 김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김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상임총무 김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만 목사

후원회 회장 김정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준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섭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후원회 김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박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배성환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상식 장로, 광동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페닐알라닌

1 손상된 신체조직 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노화억제, 항암, 항염, 항암예방(원발·재발)

(*고려대학교 송곡성 교수님 암예방 세미나 발표)

2)폴리페놀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암, 항염, 항암예방(원발·재발)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회계보고)

3)타닌: 항산화, 항염, 항암, 항염, 항암예방(원발·재발),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 치료)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르몬,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면역력 증가

6)갈락: 홍화씨의 2배, 딸기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산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영진 연구논문 발표)

7)식이섬유: 타닌(대장암, 췌장암, 폐암, 비뇨기암 예방), 타닌(대장암, 췌장암, 폐암, 비뇨기암 예방)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폴리페놀: 고당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에 통해 발표됨

1)아미노,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전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202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강사
이상규 박사
백석대 석좌교수
고신대 학교 명예교수



강사
김광인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목양제일교회 담임



강사
정영목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이사장
부산서원교회 담임



학장
한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356번길 47(전포동))
전화문의 051) 731-4202)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이사장 정기영 목사 · 학장 한명점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 교단서식 →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 2부 작성 →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 고시료 :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 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차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가노인, 장 · 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런 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경계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청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청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영남기독교 총연합 성명서 / 부, 울, 경, 경북 기총 및 대구 대목연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에 수많은 트로이 목마 (木馬)가 밀려오고, 발람의 꾀계가 넘치는 도다!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城)은 그리스 연합군이 두고 간 거대한 목마(木馬)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졸지에 무너지고 말았다. 겉으로 보기엔 적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 버리고 간 거대한 목마였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 연합군의 날랜 군사 30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목마에서 기어나 온 그 30명의 군사들은 성안 곳곳에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어 제쳤다. 그리고 몰밀 듯이 쳐들어온 잠복해있던 그리스연합군에 의해 난공불락의 트로이성은 속수무책으로 처참하게 함락되고 말았다.

한편,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열병의 심판을 당하였다.(신22~25장) 그것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뇌물을 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 하는 것임을 모암 왕 발람에게 귀뜸 해 주었기 때문이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에 산해진미의 우상의 재물과 현란한 여인들의 향연으로 올무를 놓아 이스라엘을 현혹하였다. 그날 그곳에 몰려간 이스라엘 남정네들은 온통 주지욕림의 음란의 도가니에 빠짐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계2:14) 결국 그날에 이스라엘은 2만 4천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교회)이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와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낮은 연방제 통일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문재인 정권이 연일 '트로이 목마'를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마들은 실로 다양하다. 먼저 소위 '포괄적 소수 차별 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등)이란 것이다. 그 목마 안에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同性愛)의 합법화가 숨겨져 있다. 다수가 오히려 소수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특히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생활이 억압 통제당하는 독소 조항이 교묘히 숨겨져 있다. 이 법은 이미 폐지된 간통법 낙태법과 함께 3중 패키지 음란 조장법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전 국민들을 음란과 환락과 패륜과 태아(胎兒) 살인의 극치를 이루게 하며 이러한 변태적 행위가 합법으로 보장받는 나라로 개조(改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악법은 발람의 올무와 같이 필연적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인류 최초의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수순이 바로 그러한 범죄였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 기본법'이란 목마 속에는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밑자리 깔기와 같은 무서운 기본법이 주된 자치관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아 언론에 확실한 재갈을 물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목마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정권은 4년여 집권 기간에 소득주도 성장법 목마, 주 52시간 근로법 목마, 과도한 최저임금법 목마, 비정규직 철폐법 목마, 원전 폐쇄법 목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4법의 목마 등등 근 3,500개가 넘는 트로이 목마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계속 끌어들이려 준비된 목마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목마들은 정상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조치들이 아니란 것이다. 이것들은 북한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철저히 준비된 대한민국 판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목마 속에 감춰진 비밀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신종(新種) 목마는 '코로나19 방역법'이라는 정치 방역 목마이다. 이것은 이 정권에 있어 지난 1년 반 동안 요술 방망이같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전천후 목마이다. 그런데 이 목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전 사회적 분야에 미치는 방역 법(法)이지만 유독 기독교의 목을 조이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확실히 장악 통제하려는 목적 있는 정치 방역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들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과 대전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교회당 안에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 수용인원 100명이라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만 가능토록 극약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도 웃을 극약처방을 받아도 절대다수의 특히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맹인이고 찻지 않는 병어리 개들이 되어 묵묵히 따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트로이 城처럼 나라도 교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 것인가? 결코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의 각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목회자 연합회, 장로 연합회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 행동하는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올바른 신앙을 순교의 각오로 사수(死守)할 것을 다짐하며 본 성명서를 만방에 뵈한다.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 정치와 노동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선진 국가의 반열에 오른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싫습니까?
- 그렇다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공산 독재 왕조 세습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좋습니까?
- 과연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누가 왜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화를 포기하고 개 돼지로 살고 있습니까?
-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 어떤 꿈과 희망이 남아있습니까? 누구 말처럼 개천의 봉어 가재 미꾸라지 울창이로 그냥 그렇게 N포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70~80년대의 젊은이들이 가졌던 꿈과 이상과 애국심과 용기가 있습니까?

【30만 목사와 7백만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 지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 1년 반 동안 드러본 소위 비대면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대로 좋습니까?
- 그 큰 예배당에 19명 20명 10% 20%의 성도로 예배드리며 주의 종으로서 자괴감도 없습니까?
- 정녕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 이 정권이 끌어들이는 트로이 목마들의 실체를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결의】

- 우리는 트로이 목마와 같이 교묘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모든 악법들의 제정 및 개정을 결사 항쟁으로 반대한다.
-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변질을 결사항쟁으로 저항한다.
-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교회가 통제 압제 당하거나 예배의 해방을 거부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과 그의 영광이 손상됨을 용납할 수 없다.
- 우리는 오늘의 총체적 난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으로 행한 결과이며(마7:22~23) 하나님의 보응임을 알고 먼저 통회 자복으로 회개한다.
-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이단을 제외한 교파를 초월한 모든 총회와 각급 기독교 단체들이 같은 날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일제히 미스바와 같은 '한국교회 대 각성 회개'의 주관을 선포, 실시하기를 요구하며 이 일을 각 교단 총회장들이 연합하여 주도 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이 모든 결의 사항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사각오(一死覺悟)로 일치단결하여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주후 2021년 9월 25일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 목회자 연합회 일동

회장:김문훈 목사 총장:강안실 목사 회장:이우탁 목사 총장:김형민 목사 회장:박종희 목사 총장:김성권 목사 회장:신재영 목사 총무:김대원 목사 회장:이상민 목사 총장:김상현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전혜은 // 은혜와 진리교회 편지

감사로 시작되는 가을에...

주님은
하룻밤 사이에
우리에게 가을을 선물하셨습니다.
무더위와 씨름할 땀
멀리만 있던 가을이었습니다.

주님은
계절을 통해
진리의 변함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해 놓은 그 시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사계절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곳에서 인생을 가르쳐십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기쁨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니
피부에 닿는 상쾌함이
영락없는 가을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값져 파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햇살과 바람과 청명한 하늘
코스모스 살랑살랑 잠자리와 춤추고
창조주의 섭리대로 만물이 순종하니
가을을 재료 삼아 걸작품이 시작되는 아침
두 팔 벌려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지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아침 바람이 가져다준 달과 내 몸을 간섭한다.

가을바람의 싱그러움을 여겨 주고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미래목회포럼 사학법 개정안 관련 성명 발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 지킨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

있다"고 우려했다.

성령은 또 "기독교적 개혁이념으로 세워진 학교
를 구성하는 교원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
에서 봐야하는데,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을 우려에 처했다"며 "학교법인인 자유로운 인
사권을 빼앗기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을 비
롯해, 비 신자인,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마

구장이로 인용이 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음"을 개
탄했다.

이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필어법으로 법안
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도 않은 행태"이며 "사립법 개정안의 위헌적 독소
조항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비광 끝에 선 삼정으로
낙선운동은 물론, 헌법소원 등의 행동에 동원해 '사
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교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독교나 기
독교적 개혁이념들이 국가인본위원회 등의 간섭과
무리한 권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임용
권마저 뺏겨가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 사학을 버
릴 필요로 내몰는 것"이라며 "이는 기독교를 향한

압박이자, 통제나 다름없다. 꼭 기독교 사학이 아니
더라도 한국교회의 전체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
대 목소릴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목이 아끼
에 있다"고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교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독교나 기
독교적 개혁이념들이 국가인본위원회 등의 간섭과
무리한 권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임용
권마저 뺏겨가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 사학을 버
릴 필요로 내몰는 것"이라며 "이는 기독교를 향한

사설

한국의 장래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IAEA가 북한핵 시설 전면제/동 징후를 밝힌것은 긴
정온의 비평의 의의가 거대하다는 증거다. 이 정부가 강경
은에 대한신호를 내내 보내려던 북핵 폐기중지가 있어
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강경온의 비평의 의의가 막는다는
말만 되뇌이는 것은 안보불안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결의를 통해 제재를 내렸고
국, 유엔 전문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0일 북한의 불투명한 진전과 함께 평가가 시작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종란언론의 의의를 지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장을 끝내는 데에 반대하는 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란언론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붕괴가 되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문
제에 대해서는 사색을 간교해서는 안 된다. 인권·인본·

그런데도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
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비판하지 않은 채 '종란언론
을 비롯해서 북한의 불투명한 진전과 함께 평가가 시작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종란언론의 의의를 지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장을 끝내는 데에 반대하는 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란언론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붕괴가 되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문
제에 대해서는 사색을 간교해서는 안 된다. 인권·인본·

그런데도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
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비판하지 않은 채 '종란언론
을 비롯해서 북한의 불투명한 진전과 함께 평가가 시작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종란언론의 의의를 지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장을 끝내는 데에 반대하는 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란언론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붕괴가 되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문
제에 대해서는 사색을 간교해서는 안 된다. 인권·인본·

교육방송 EBS의 엇나간 퀴어·젠더 교육 방송

EBS 교육방송(시장 김명중)이 지난 9월 21일 '퀴
어 수업, 그레이트 메인즈'에서 퀴어(동성애, 젠더이론
의 장사지이자,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대표자인 학
자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강연을 방송했다.
교육방송 EBS가 이 방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어떤 교
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

미국의 철학자이자 동성애·젠더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는 1990년 "젠더 트러블"을 저술했는데, 그는

'성별학적 성(性)과 사회적 성(性)의 불일치'라는 것이
행위의 모순(悖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전부터
인 성(性)·남녀를 넘어, 혼란하고도 이상(異常)한 사
회적 성(性)인 젠더(수성)가 지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이해하
는데, 이들 개념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주
디스 버틀러는 소아들의 성 욕망을 긍정하면서 소아
애와 근친상간도 변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성인들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 욕망"으로 소아성애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름 또한 학설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 조장이
아닌가?

이런 사립의 방송을 EBS에서 전파로 송출한다는 것
은 국가의 기간(基幹)방송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원이
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퀴어를 통한 문화 미르(美譽)
를 심어주고, 방정(方正)한 가정들을 해체하는 것을 실천하
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인간을 저질스럽게 만들고 오염된 철학 사상
과 퀴어 이론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방송하려는 EBS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시
청자들은 시청자부문을 통해 방송의 비정상을 꾸짖
어야 한다. EBS는 자사의 경영목표에서 '공공적 교육
공익적 책무' '공적 역할 확장'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런 추악한 젠더 이론의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방송의
공익과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EBS가 스스로 정
한 목표부터 지키는 교육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적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
보검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험과 전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완공되어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사관장회 증경회장
한경원 부사와 고연근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검로 479번길 43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합본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본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